

3) 낙안면 평사리 농악

순천지역의 농악은 전라 좌도곳에 속한다. 좌도곳은 전라도 동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곳이다. 좌도곳을 전승하고 있는 지역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면 북부의 진안, 중부의 남원·임실·곡성, 남부의 화순·순천·고흥으로 묶을 수 있다. 순천 농악은 전라도 동남부 좌도곳의 대표적인 것으로, 낙안면과 주암면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다. 여기서는 낙안면 평사리 농악의 전승과 연행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 래

낙안면 평사리 농악은 매굿 또는 매구라 부른다. 마당밭이, 곧 지신을 밟는 매귀(埋鬼)를 하여 모든 잡귀와 잡신을 몰아친다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평사리 매구는 군악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김종대(남, 65, 상쇠)의 구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1991. 3. 24. 현지조사)

낙안 농악은 군악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한다. 옛날 낙안부에 임경업 장군이 군수로 계실 때 왜적을 물리치고 방어하려고 여기서 농악으로 신호를 했다고 한다. 진곳이 있는데 곳을 갖고 진을 치면 왜군이 공격을 못 해왔다고 한다. 이렇게 곳을 친 것으로부터 농악이 시작되었다. 이렇듯 우리 농악의 직접 뿌리는 군악이다. 진쟁터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선발대가 농악을 울려주고, 또 적을 물리쳤다고 하면 승진한다고 해서 영기를 두르고 승리곳을 쳤다. 유래가 이조 중엽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농악을 계속 쳐왔고, 일정 때에도 쉬지 않았다. 당산을 모셔 당산곳을 치고, 지신곳을 쳤다. 일 년 열두 달 행운을 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

(2) 구 성

농악대의 구성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데,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그 규모도 축소되었다. 평사리 농악의 구성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농부'라 불리는 소년들이다. 농부는 4~5명 정도로 쇠꾼의 복장을 하고 악기를 들지 않은 채(때로 소고를 치기도 한다), 굿패의 후미에서 상모를 돌리며 춤을 추면서 굿패를 뒤따른다. 이들은 대개 12~15세 정도의 소년들로, 이렇게 굿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가락과 굿 진행과정을 익힌다. 농부는 농악대가 되기 위한 수업과정에 있는 소년들이다. 이들 중에서 끼와 기량을 인정받은 사람은 장차 상쇠감으로 다듬어지기도 했다. 현 상쇠인 김종대도 12세 때 농부로 농악에 입문하여 끝쇠, 중쇠, 중쇠를 거쳐 상쇠가 되었다고 한다.

'세명기'라 부르던 큰 깃발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평사리의 세명기에는 용이 두 마리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세명기는 전남지역에서 흔히 '용당기' 또는 '떡석기' 등으로도 불리는 큰 기인데, 이 기에는 용이나 잉어 등이 그려져 있다. 용은 농사에 가장 중요한 비바람을 관장한다고 믿어지는 신격으로, 용당기는 용신앙과 관련된 상징물이다. 큰 기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쓴 농기를 말한다. 잡색은 과거에 비해 수가 줄었다. 대포수는 항상 등장하지만 나머지 잡색들은 잘 나오지 않으며, 특히 무동은 적당한 어린애가 없어 세우지 않는다.

요즘 농악을 칠 때 꾸러지는 굿패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큰 기 : 1명
영기 : 2명
쇠 : 4명(상쇠 1·중쇠 1·중쇠 1·끝쇠 1)
징 : 2명
장구 : 4명
북 : 2명
소고 : 15명
농부 : 5명
잡색 : 5~6명(대포수·창부·조리중·양반·여색·무동)

(3) 연행양상

농악은 세시풍속과 관련된 세시놀이에 정기적으로 연주되었으며, 기타 환갑잔치나 상량식 등에도 농악을 치며 놀았다. 마을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술 한 잔 생기면 아무 때나 치고 놀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농악을 가까이 접하며 살았다. 농악이 이렇게 생활 가까이에 있었지만,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활력소로 기능하였다. 농악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치고 노는 것은 아니다. 농악은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적절한 규모와 형태로 기능하였다. 당산제와 관련될 때에는 굿음악으로, 줄다리기나 달집태우기와 관련될 때에는 놀이음악으로 그리고 논매기와 관련될 때에는 노동음악으로 기능하였다.

평사리 농악은 정월에 하는 당산굿과 마당밧이가 가장 큰 규모였다. 판굿은 본래 마당밧이나 걸립 때 하는 판놀음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독립된 하나의 굿판으로 행해지고 있다. 두레 굿은 농사철에 김매기나 풀베기를 하면서 치는 굿인데, 화학비료와 농약이 널리 쓰이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옛날에 하던 방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당산굿과 마당밧이

당산제는 일제 때 중단되었고, 그뒤로 대신 당산굿을 치고 있다. 본래는 마을회의를 통해 제관을 선출해서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당산제를 모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대신 농악으로 굿을 치는 당산굿을 올린다. 이러한 사정을 마을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당산은 너무 순하므로 제 안 모시고 굿으로만 해도 괜찮다고 하여 당산제를 안 모시고 굿만 치게 되었다.”

현 제보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 것은 당산굿이다. 그래서 당산제에서 당산굿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 위의 말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아울러 본래의 당산제 때 농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짐작건대 옛날에 당산제를 지낼 때에도 농악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암면 운룡리를 비롯한 순천지역의 당산제를 보면 굿패가 제관과 함께 참여하여 제사를 모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평사리의 경우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당산제에서 당산굿으로의 변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본다. 지금도 당산굿을 칠 때는 개고기를 먹거나 초상집에 다녀온 사람 또는 상복을 입은 사람은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산제를 지낼 때 제관의 자격조건과 같다. 곧 형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당산신앙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관을 세워

당산제를 지내는 방식이 원형은 아니다. 당산제에는 ‘정숙형’·‘풍물굿형’·‘무당굿형’ 등의 유형이 있듯이, 제관·농악 등은 당산신앙을 지탱하고 공유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평사리의 경우 당산제가 당산굿으로 변했지만,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

당산굿은 정월 초사흘날 오후에 친다. 이날 시작하는 매구는 정월 내내 계속될 마을굿의 서막에 해당하는데, 대개 초사흘날부터 보름 이후까지 농악을 쉬지 않고 치고 놀았다고 한다. 당산굿은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 앞에서 친다. 음식을 차리지 않는 것이며, 상쇠의 지휘에 따라 당산신에 인사굿을 치고, 당산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문굿 같은 것을 치면서 ‘당산놀음’을 한다. 당산굿 이후 정월의 마을굿은 크게 다리굿, 샘굿, 집돌이(마당밧이), 날당산굿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리굿은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비는 굿이다. 일 년 열두 달 다리가 튼튼하기를 바라고, 또한 다리를 건너다니는 마을사람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굿이다. 상쇠가 “건너갈까 말까, 건너갈까 말까.” 하는 입장단을 하고, 그 입장단에 맞게 굿머리로 그것을 받아치면서 다리위를 왔다갔다 하는 방식으로 굿을 친다. 샘굿은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친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맛 좋은 물이 솟아나기를 기원하는 굿이다. 먼저 “쨌쨌쨌... ” 하는 인사굿을 치며 절을 한 후, “물주소 물주소 용왕님네 물주소.” 하는 입장단을 외친 뒤 가락으로 그것을 받아친다.

집돌이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마당밧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사리의 마당밧이는 대개 새림굿, 마당굿, 조왕굿, 성주굿, 장꼬방굿, 샘굿, 노적굿 순서로 진행된다. 굿패가 대문 앞에 도착하면 새림굿(문굿)을 친다. 새림이란 대문의 방언이다. “주인 주인 문 열어 주인 주인 문 열어.”라는 입장단을 외친 후 그것을 그대로 굿머리로 받아치면서 대문을 세 번 들락날락한다. 이어 길굿이나 삼채로 가락을 바꿔치면서 마당으로 들어간다.

마당에 들어와서 치는 굿이 마당굿이다. 마당굿을 지신굿이라고도 하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잡귀·잡신을 물어버리고 쫓기 위해서 치는 굿이라는 뜻이다. 마당굿을 치고 주인이 내놓은 술과 음식을 먹고 쉬다가 다시 굿을 일어 조왕굿을 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다. 부엌에 들어가면 먼저 큰 솥 앞에 늘어서서 ‘쨌쨌쨌... ’ 하는 인사굿을 치며 절을 두 번 한다. 이어 상쇠와 치배들이 다음 소리를 주고받는다. “매구여” “예이” “일 년 중 이 덕의 잡귀·잡신은 몰알로 쳐내고 명과 복은 쳐들이세.” 이러한 소리를 외친 후 ‘명과 복은 쳐들이세.’라는 입장단을 가락으로 받아 2장단 친다. 다음 굿패가 일제히 “성주님이 좋아라네.”라고 입장단을 외친 후 가락으로 똑같이 받아치면서 뒤꼍으로 이동한다.

굿패가 집 뒤로 돌아가 성주에게 비는 굿이 성주굿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성주굿을 마루나 안방에서 치는데, 평사리의 경우 뒤꼍에서 치는 것이 특이하다. 먼저 ‘쨌쨌쨌... ’ 하는 인사굿을 치며 절을 한 다음, “성주성주 조상성주”라고 입장단을 외친 후 가락으로 그것을 받아친다. 이어 ‘성주님이 좋아라네.’를 입장단 없이 가락으로만 치면서 장독대(장꼬방)로 이동한다. 이 가락은 장소를 옮길 때 치는 ‘이동굿’처럼 친다.

장독대에 도착하면 진가락을 끊은 다음 ‘쨌쨌쨌... ’ 하며 절을 두 번 한다. 이어 자진모리로 쳐올리고 다시 끊은 다음 “꼬방꼬방 장꼬방” 하는 입장단을 하고 똑같이 굿머리로 받아친다. 장독대에는 가족들이 먹는 음식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장이나 된장 같은 기초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음식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대한 신들의 보호를 기원하는 굿이 장꼬방굿이다. 장꼬방굿을 친 후 샘굿을 친다.

곶간굿은 노적굿이라고도 한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이고, 노적이 하늘 높이 쌓이는 소원을 비는 굿이다. “노적이야 노적이야 남원산성 노적이야.” 하고 입장단을 외친 후 가락으로

받아친다. 이렇게 집 안 곳곳을 돌며 매구를 친 다음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마당밧이를 한다. 집돌이란 이렇게 집집이 돌면서 마당밧이를 한다고 해서 붙인 명칭이다.

집돌이가 끝나면 날당산굿을 친다. 날당산굿은 이름에서 보듯이 당산을 나가면서 치는 곳으로, 동구에서 거리굿으로 친다. 당산굿이 시작이라면 날당산굿은 마지막에 해당한다. 옛날 노인들이 날당산굿을 칠 때는 마당밧이를 통해 집집마다 몰아낸 동네의 잡귀·잡신을 동구 밖으로 몰고 나가, 과일이나 나물을 준비하고 메를 새로 지어 차려놓고 먹여 보냈다고 한다. 지금은 음식을 차리지 않는고 상쇠가 농부들을 데리고 동구 밖으로 나가 귀신을 쫓고 나서 상모놀음 같은 놀이를 한다. 농악대는 중쇠의 지휘로 매구를 치고, 이때 중쇠는 멀리서 상쇠가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 농악대를 지휘해야 한다. 한참 상쇠의 신호로 가락을 바꿔 놀다가 상쇠가 자리에 앉으면 가락을 멈추고 날당산굿을 끝낸다.

② 걸립굿

걸립굿은 마을 공공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 치는 곳이다. 마당밧이도 기금마련의 성격을 띠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마당밧이가 자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걸립은 다른 마을에 가서 굿을 치고 오는 것을 말한다.

걸립패가 대상 마을에 도착하면 셋대를 세 번 불어 마을에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해달라는 신호를 한다. 셋대는 흔히 뿔뿔이라고도 하는 신호용 악기로 사용되는 나발이다. 나발소리를 듣고 마을에서 나발이나 징소리를 내면 들어오라는 신호이다. 마을에서 신호를 한 다음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상쇠가 그에게 당산이나 샘 등의 위치를 묻고 굿 내용에 대해서도 상의한다. 이런 후에 당산나무 앞에 가서 들당산굿을 치고, 이어 마당밧이하듯이 굿을 진행한다. 어떤 마을의 경우, 들당산굿을 치고 난 다음 “문굿을 한 번 쳐봐라.” 또는 “탈머리굿을 한 번 쳐봐라.” 하는 식으로 걸립패의 기량을 시험해보기도 한다. 만약 그것을 잘못 치면 걸립의 대가를 못 받는다.

걸립굿은 대개 들당산굿, 샘굿, 마당밧이, 날당산굿 순서로 진행된다. 물론 도중에 다리가 있으면 다리굿을 치기도 한다. 마당밧이는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한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걸립굿에서는 자기 마을에서 치던 농악보다 볼거리가 많거나 기예가 우수해야 하는데, 이때문에 여러 가지 놀이와 가락을 선보이는 판굿이 벌어졌다. 판굿은 부잣집 마당이나 마을 공터에서 했다.

③ 판 굿

판굿은 마당밧이나 걸립굿을 칠 때 주인이나 마을사람들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한다. 판굿에서는 수십 가지의 가락과 놀이가 행해지기 때문에 초저녁에 치기 시작해도 새벽까지 치고 놀 정도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놀이 틈틈이 술과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 이런 음식은 판굿을 유지한 주인이 부담했다.

평사리의 판굿은 16가지 종류의 굿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다양한 놀이가 있다는 것인데, 상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놀이를 골라 판굿을 꾸민다. 판굿에서 행하는 굿을 들면, 반립굿·징굿·도둑재비·탈머리굿·갓은당산·문굿·노래굿·갯나리굿·뽕엄지굿·등마지기·어허굿·북놀음·농부놀음·설장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노래굿은 전승이 중단되었으며, 도둑재비의 경우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노래굿은 “오늘 밤도 하 심심하니 노래 한 자리 해볼까.” 하는 식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인 화순·한천의 것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④ 두레굿

두레굿은 김매기를 하거나 풀베기를 할 때 치는 농악이다. 두레란 마을의 공동노동 조직으로, 이러한 두레패가 일을 할 때에는 풍물을 동원하여 굿을 치며 일을 하고 놀기도 했다.

김매기굿을 하면,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세명기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큰 기(농기)를 들고나가 당산굿을 쳤다. 김매기 첫날 당산신에게 굿을 쳐서 고함으로써 풍년 들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이때 치는 당산굿은 '홀림당산'이라 하여 간단히 몇 가락만 요약해서 친다. 당산굿을 친 다음 세명기는 당산나무 곁에 세워두고 큰 기를 들고서 팽과리와 북 등을 치며 논으로 나가 일을 했다. 일이 시작되면 풍물패 두어 사람이 쇠와 북을 치면서 흥을 돋우고 나머지는 논에 들어가 김을 땀다. 이때 상사소리나 산아지타령 같은 들노래가 불리기도 한다.

풀베기굿은 소동들이 소고를 치고 다니면서 한다. 이러한 풀베기굿은 소고 1~2개 그리고 영기 2개 정도밖에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농악의 다양성이나 재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